

[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 2017년 11월 5일 단톡방 보강 수업 내용]

2017년 11월 5일 오후 7:59, 노명환 교수님 : 모두들, 단톡방에 들어왔나요? 일요일 저녁 쉬는데 좀 그렇지요? 그래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다는게 큰 편리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노명환 교수님 : 들어온 사람들 확인 필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양준호 : 네 교수님 ㅋㅋ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에나 SKY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초아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박연희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선영 : 안녕하세요. ^.^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송명배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최민경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00, 보영 : 넵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01, 도제몬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1,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1, 노명환 교수님 : 현재 12명 이네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1, 노명환 교수님 :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논문 150 페이지 불가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2,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2, 노명환 교수님 : 각자 그 페이지의 두번째 단락 보아주세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2,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2,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노명환 교수님 :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기록도 과거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소마미 : 네0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도제몬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3,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4, 노명환 교수님 : 오늘 단톡방에서 우리는 기호와 상징을 통해 소통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4,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5, 노명환 교수님 :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5,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5,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5, 태현 :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 왔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5, 노명환 교수님 : 무엇을 어떻게 왜 소통하는가가 중요하겠습  
 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6, 노명환 교수님 : 김태현선생님, 지각이네요. 봐줄게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06, 태현 :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다가.. πππ

2017년 11월 5일 오후 8:07, 노명환 교수님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시대의 가치, 에피스테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7,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7,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8, 노명환 교수님 : 자 그러면 기록학의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하  
 면 우리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호학을 빌리기로 했던 것입니  
 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9,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09, 노명환 교수님 : 기호학은 인간 존재의, 인간 삶의, 인간 사회  
 소통의 본질을 기호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양준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0,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1, 노명환 교수님 : 낮에 나는 인간의 삶은 의미만들기라는 점을  
 두개의 시와 노인과 바다 소설을 가지고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엠발고도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1,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1, 노명환 교수님 : 예말고도 (오타)

2017년 11월 5일 오후 8:11, 보영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11,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2,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노명환 교수님 : 기록은 의미적 존재 (의미만들기 산물, 의미 만  
 들기 중에 있음) 이고, 우리의 기록관리 행위는 의미만들기 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  
 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송명배 선생님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3,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4,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4,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4, 노명환 교수님 : 의미 만들기의 구체적 형상이 기호로서 나타납  
 니다. 기호학은 인간의 의미만들기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노명환 교수님 :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라고 생각합니다" 로 받아주세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5, 양준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6, 노명환 교수님 : 의미 만들기를 주고 받는 것이 의사소통이고, 이것이 인간 사회 삶의 핵심이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6,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6,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7,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7, 양준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7,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7,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8, 노명환 교수님 : 우리가 기계적인 기록의 정리 작업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이용자와 의미 만들기의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8, 선영 : 기호학이 오늘날 여러가지로 나뉘어 이야기되는데요.. 분류중에 텍스트기호학도 해당된다고 되어있네요.

인터넷자료이긴 하지만 기호학이 소통의 학문인건 분명한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8, 노명환 교수님 : 이를 위해 기호학에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으면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9, 회원님 : 네~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9, 선영 : 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19, 노명환 교수님 : 변선생님, 고맙습니다. 적극적 수업.

2017년 11월 5일 오후 8:19, 선영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노명환 교수님 :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해요. 정답은 없다. 오로지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무엇이 두려운가?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송명배 선생님 : 네. 소통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박연희 : 네 기록학과 기호학은 유기적 관계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계적인 기록의 정리만 해서도 안되겠지만  
의미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선영 : 타이핑이 빠르지 못하게 두렵습니다. ㅎㅎㅎ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기호학의 소통의 의미를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게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20, 초아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21, 노명환 교수님 : 박연희 문제제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리적 실제적 관리를 하지 않고는 의미만들기 (개념적 구성)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1, 노명환 교수님 : 유기적 관계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2, 선영 : 이번에 기록인대회에서 느꼈지만 정리작업은 앞으로 AI가 많이 해결해줄듯 합니다.

비전자기록이 줄어드는것도 우리가 정리외에 다른 업무분야를 개척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2, 노명환 교수님 : 기록관리의 첫째는 물리적 기록물의 관리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만들기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4, 선영 : 물리적 기록관리는 계속적인 정리기술과 방법, 규정과 법의 변경으로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동일기록유형이 정리된해에 따라 연도별로 혹은 다른기준으로 정리되어 쌓여왔으니까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25, 노명환 교수님 : 그 작업은 인공지능이 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 만들기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의미만들기를 생각하면서 노동으로서의 정리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입니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자는 것이 노명환교수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5, 선영 : 물리적기록관리가 우선인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보존된기록자체도 일관된 기준은 아니고 축적되어온 양이 많다보니 여러분야를 동시에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5, 태현 : 콘텐츠에 있어서 의미만들기의 시작은 스토리텔링일텐데요. 스토리텔링 역시 기호학적 소통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시각 기호학에 대한 이해가 기반으로 효과적이고 풍부한 의미 만들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상징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시각 기호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시각 기호학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첨부하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https://prezi.com/msbueqv\\_6tsf/presentation/](https://prezi.com/msbueqv_6tsf/presentation/)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노명환 교수님 : 변선영, 김태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소مام이 : 좋은 참고자료 고맙습니다 선생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초아 :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초아 : 선생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보영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도제문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6, 선영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7,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김선생님, 나는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기록물 수집, 정리, 기술 등이 이미 의미 만들기 행위라고 봅니다. 케텔라르 교수는 그것을 아키발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7, 태현 : 네. 의미만들기는 인간의 살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8, 노명환 교수님 : 물론 스토리텔링부터 본격적인 의지적인 의미 만들기가 시작되는 (기록활용)이 시작되는 것이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28, 태현 : 기록물 수집 단계부터 기록물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선 기호학적 이해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0, 노명환 교수님 : 예. 김선생님. 우리 얼굴의 표정이 무의식적으로 의미만들기를 하고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은 아 이 강의를 재미있게 참

여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의미를 만들어 갖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ㅎㅎ

2017년 11월 5일 오후 8:32, 노명환 교수님 : 예, 우리의 기록에 대한 이해, 기록관리 행위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본질, 인간사회의 본질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해보게요. 그런데 그것이 꼭 기호학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3,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3, 선영 : 기록물의 수집단계라는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기관에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같은경우 동종기록이 워낙대량이라 확인이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들어 중요인물 관련자료만 찾아도 거의 톤단위로 세어야합니다.

물론 목록과 내용이 안맞는경우가 반이구요.

ㅠㅠ

2017년 11월 5일 오후 8:34, 김인솔(Kim) : 늦게 참여하게 되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전철 안에서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제 확인합니다(흑흑)

2017년 11월 5일 오후 8:34, 선영 : 처리과에서 정리해서 넘겨야하는 정리기술지침은...가장 어려운일인지라...

2017년 11월 5일 오후 8:35, 노명환 교수님 : 어제 저는 역사관의 러시아 타자기를 언급했습니다. 타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기와 어떠한 인연을 가지고 있나? 즉 사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타자기는 사람의 그러한 상황을 투영합니다. 달리 표현하여 사람이 타자기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기록이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록을 통한 인간, 인간관계, 인간 사회가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생각을 깊이 했으면 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5, 선영 : 물론 수집과정에서 의미를 찾는건 중요하고 생각해봐야 할 일이겠지만요.

필드에서 일하는분들은 쉽지않을겁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6, 선영 : 네.

인간, 인간관계와 인간사회가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생각은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11월 5일 오후 8:36, 선영 : 러시아타자기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7, 노명환 교수님 : 변선생님, 정리 과정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 고 점을 좀더 생각해 볼가요? 아키발라이제이션 이라는 개념과 함께, 정리 작업에서 문가 정리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미가 만들어지지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37, 노명환 교수님 : 변선생님 답 기다릴게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38, 선영 : 네. 맞습니다.

최초이관시 목록을 먼저 검토한후 어느서고에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지 검토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9, 선영 : 양을 가늠하고 정리도구를 준비해놓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른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39, 노명환 교수님 : 그 때 (그 어느 과정에서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것.

2017년 11월 5일 오후 8:39, 노명환 교수님 : 그 다른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0, 노명환 교수님 : 인솔이 안녕.

2017년 11월 5일 오후 8:40, 선영 : 지금까지 저희기관은 정리담당자의 가치관이 많~이 반영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부분은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1, 선영 : 예를들어 사건기록과 조사기록의 경우 전임자는 사건위주로 후임자는 연도별로...

이렇게 영기곤 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1, 노명환 교수님 :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기호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2, 선영 : 사건에따라 연결시키는게 맞다는 다수의견에 정리기술이 맞다는 기록전문과정 이수자의 의견에...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2, 노명환 교수님 : 그렇게 언키는 경우, 누가 맞고 틀리다 보다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는지?

2017년 11월 5일 오후 8:42, 노명환 교수님 : 오케이 이 점은 앞으로 더 의논하고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43, 선영 : 네. 잠시 논점에서 벗어난것 같습니다. ^^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김인솔(Kim) :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의 내용을 정독하느라 반응이 늦었습니다(흑흑)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노명환 교수님 : 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과 개념적 구성 (의미만들기) 로서의 기록은 뿔레야 뿔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 관계라는데 우선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양준호 :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선영 : 네. 그점에는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도제문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김인솔(Kim) : 넵,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송명배 선생님 : 네.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4, 최민경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5, 보영 : 넵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5, 회원님 : 네 동의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5, 노명환 교수님 :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시다. 더 계속하면 좋은데, 다른 측면을 해서 또 그 문제로 접근하자는 뜻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5, 선영 : 네. 감사합니다.

추후에 좀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5, 소마미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46, 노명환 교수님 : 그렇다면 실무가 중요하다, 이론이 중요하다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관리와 활용의 관계 또한 유기적인 것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6, 노명환 교수님 : 이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데대로 발전시키는가가 우리 전문가의 할일이라 생각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김인솔(Kim) : 넵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박연희 : 네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7,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노명환 교수님 :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인간 사회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원리를 벗어나서 관리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죠?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양준호 : 넵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8, 소مام이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9,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9,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9,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49, 노명환 교수님 : 그러니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록을 이해하고, 기록관리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록 활용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50, 송명배 선생님 : 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8:51, 김인솔(Kim)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2, 노명환 교수님 : 그 유기적인 관계, 우리는 물리적 실체로서 기록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록과의 관계를 김춘수의 꽃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의 평가 선별을 하는 것은 이름을 불러 준 것이고, 그 기록은 내게 (우리에게) 와서 꽃이 된 것이지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52, 선영 : 맞습니다. ^^

2017년 11월 5일 오후 8:53, 김인솔(Kim) : 넵!

2017년 11월 5일 오후 8:53,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그 꽃이 내게 이름을 불러주길 바랍니다. 또 그래요. 그것은 내게 내 이해 체계 방식으로 증거가 되고 기억이 되고, 문화유산이 되어 줍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4, 선영 : 불러주어야죠. 기다림에 부응해서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55,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꽃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 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컨티뉴업 이론입니다. 의미를 만들어 낸다, 달리 표현하여 구성됩니다. 정체성도 기억도. 이것이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5, 회원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6, 송명배 선생님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6, 선영 : 네. 이제 확실히 이해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도제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김인솔(Kim) : 네!(아잉)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소مام이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노명환 교수님 : 오늘 예상대로 성리학적 구성주의까지는 못가네요. 다음에 또 하고요. 오늘 한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소쉬르, 퍼스, 기든스, 업워드 이론들 가지고 공부해 가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선영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최민경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도제문 : 네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7, 태현 : 넵.

2017년 11월 5일 오후 8:58, 보영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8, 박연희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8, 소마미 : 네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8, 노명환 교수님 : 이렇게 본다면 기록관리, 기록학은 엄청나게 창의적인 행위이고 학문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2017년 11월 5일 오후 8:58, 김인솔(Kim) : 네 알겠습니다당!  
 2017년 11월 5일 오후 8:59, 김인솔(Kim) :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9, 노명환 교수님 : 오늘 우리 수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이렇게 뜨겁게 소통했잖아. 소중한 삶이었구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8:59, 초아 : 네 그런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9, 소마미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8:59, 초아 : 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0, 선영 :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0, 태현 : 넵.  
 2017년 11월 5일 오후 9:00, 노명환 교수님 : 그 하루 밤의 바다 한가운데 노인의 투쟁적 삶처럼, 이름을 불러 주었잖아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9:00, 노명환 교수님 : 그래서 우리는  
 2017년 11월 5일 오후 9:01, 노명환 교수님 : 왜 사냐건  
 2017년 11월 5일 오후 9:01, 노명환 교수님 : 웃지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9:01, 선영 : (이모티콘)  
 2017년 11월 5일 오후 9:01, 선영 : (이모티콘)  
 2017년 11월 5일 오후 9:02, 선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2, 노명환 교수님 :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그것은 정말 농담이고.  
 2017년 11월 5일 오후 9:02, 노명환 교수님 : 한 주 잘 보내요. 금요일에 봐요.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고 고마워요. 무진장,^^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태현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송명배 선생님 :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보영 : 넵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선영 :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저녁되세요.  
 ^.^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회원님 :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최민경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도제문 :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김인솔(Kim) :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예나 SKY맘 : 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김인솔(Kim) : (이모티콘)  
 2017년 11월 5일 오후 9:03, 소마미 : 네 금요일에뵙겠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오후 9:04, 노명환 교수님 : 예. 잘 지내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9:04, 양준호 :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7년 11월 5일 오후 9:04, 박연희 : 쉬는날까지 소중한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2017년 11월 5일 오후 9:17, 초아 : 감사합니다 교수님

2017년 11월 6일 오후 12:07

2017년 11월 6일 오후 12:07, 노명환 교수님 : 어제 수업 한 것 한가지 보완할게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1, 노명환 교수님 : 컨티뉴엄 이론에서 증거 축선 등 4가지 축선  
과 기록의 생성 등 4가지 차원이 끊임없이 상호 접점을 만들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선과 차원은 궁극적으로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상징 적으  
로 형상화 시킨 것입니다. 이 컨티뉴엄 다이어그램은 일종의 상징, 기호 체계입니다.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2,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이 다이어 그램에서는 축선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데, 나는 그것이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5, 노명환 교수님 : 음과 양이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라는 음양  
설을 채용하면서 축과 차원의 관계를 설명해 봅니다. 이것이 내가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컨티뉴엄 이론에 적용하는 것인데, 위의 서양학자들이 대단히 진지하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점  
입니다.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5, 노명환 교수님 : 어렵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금요일까지  
이 논문을 다시 읽고 다른 세분의 논문들 가지고 오기 바래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6, 노명환 교수님 : 랜들 지머슨의 책, "기록의 힘" 평소 잘 읽어  
보기 바라구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8, 노명환 교수님 : 우리가 증거와 기억의 관계를 보면 그것은 전  
혀 다른 두가지라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증거의 역할 이면서 기억의 역할. 금요일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해안가도 조금도 껄념치 말고 금요일까지 다시 읽고 오기 바래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9, 노명환 교수님 : 어제 수업전의 글에서 사진들을 설명하면서

2017년 11월 6일 오후 12:19, 노명환 교수님 : 암스테르담 교수를 한스 토마센이라 했는데,  
테오 토마센 (기록의 평가 전문가)으로 교정부탁요.

2017년 11월 6일 오후 4:04, 노명환 교수님 : 컨티뉴엄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을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 강의 후반부에서 할 것입니다. 우선 읽어두기 바랍니다.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생산 환경과 과정 그리고 미래의 실현 가치들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 데이터들을 분류·정리하고, 즉 데이터 마  
이닝을 하고 종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 생산과 서비스, 미래의 가치를 위한 기본 자료들을 산출한다. 이 자료  
들은 관련 담당자, 경영진 및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전달된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담당자,  
경영진 및 의사소통 플랫폼 구성원들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  
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의사결정 결과는  
기업의 차원 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과 상황들이 철저히 기록된다. 이는 추후 참고자료가 되고, 업무를  
위한 증거자료가 되며, 아카이빙 되어 보존 및 활용된다. 부서 간 또는 기업 간 책임 문제가  
발생할 때, 이 기록들은 설명책임성의 원천 자료가 된다. 법률적인 분규의 해결 실마리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규정 및 법률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상에서 발  
생하는 문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스마트 공장에서 기

록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창의성, 아이디어는 가장 중요한 경제재화라고 할 때 기록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욱 크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록학에서 제기된 레코드 컨티뉴엄, 정보 컨티뉴엄 이론의 가치가 매우 유용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기록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기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원적으로 이러한 기록들 그리고 가상 물리 시스템의 데이터 기록들이 무결하게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이 위·변조되거나 손상됨이 없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현재 블록체인(Blockchain) 시스템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 보존함으로써 위·변조 및 손상의 위험을 막는다. 즉,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를 통한 초 연결 사회를 신뢰성에 기초하여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하나로 이해된다.